

현안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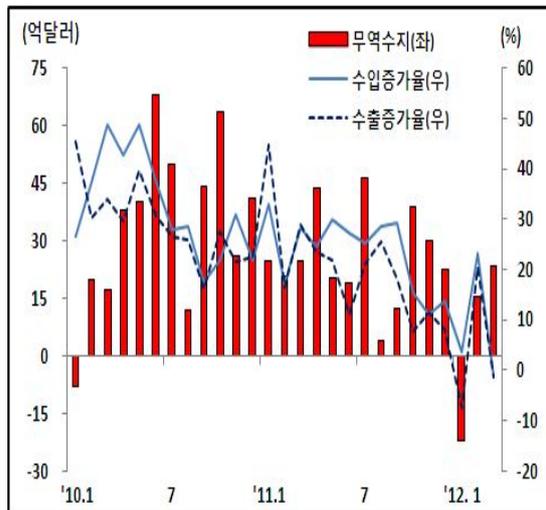
| 수출 경기 회복의 5대 기대 여건

1. 수출 경기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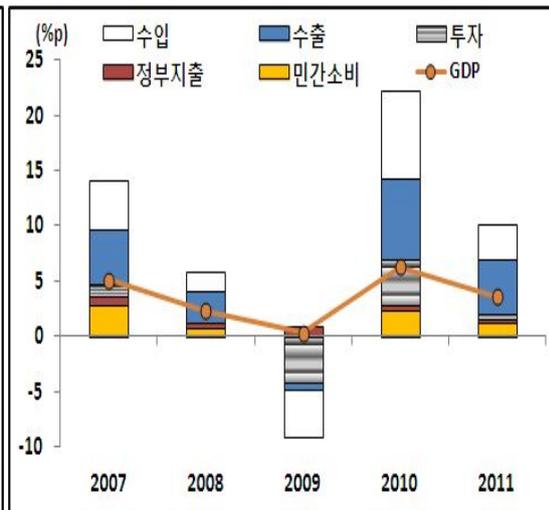
○ (현황)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최근에 들어 수출 경기가 악화되었음

- 수출 증가율 하락 : 올해에 들어 수출증가율이 급속히 낮아짐
 - 2012년 1월 수출증가율이 -7.3%를 기록했고 3월에는 -1.4%를 나타냄
 - 특히 지난 1월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2년만에 2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3월 수출 증가율도 -1.4%로 둔화세가 지속
 - 수출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것은 수입증가율도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임
- 수출의 중요성 :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수출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국내 외환보유의 안전판 역할도 담당
 - 2011년 GDP 증가율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5.0%p로 수입의 3.2%p를 제한 순수출 기여도는 1.8%p임. 따라서 순수출 기여도는 2011년 성장률 3.6%의 50%를 차지
 - 따라서 수출 경기가 침체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영향이 크며 경제성장률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대외 여건의 악화와 함께 수출 경기가 침체되어있으나, 향후 수출이 회복될 수 있는 대내외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음

<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2010~2012 > < 지출항목별 GDP 성장기여도 2007~2011 >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자료 : 한국은행.

2. 수출 경기 회복의 긍정적 여건

○ 수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선진국 경기회복세, 수출경쟁력 유지, IT 수출 경기 회복 조짐, 석유제품 수출 급증, FTA를 통한 수출 여건 개선 등 5가지 긍정적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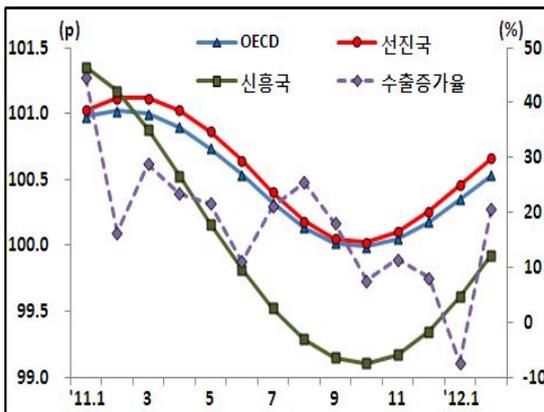
- 수출 회복의 긍정적 여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향후 수출 경기가 회복될 경우 1/4분기 현재 한자리수(3.0%)에 불과한 수출증가율이 하반기 들어서는 두자리수(10%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선진국 경기 회복세) 최근 미국과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수출경기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 2/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
 ·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2011년 말 반등하여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2년 2월 현재 100.7을 기록하여 기준선 100을 상회
 · 1/4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은 저점을 통과하여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출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주요 수출국들의 경제지표가 점차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경기도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
 · IMF는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5%, 미국 경제성장률을 2.1%, 일본은 2.0%로 지난 1월 전망치 대비 각각 0.2%p, 0.3%p, 0.4%p 상향 조정¹⁾
 ·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8%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 교역량도 0.2%p 상향 조정되어 4.0%의 증가할 전망

< OECD 경기선행지수 및 수출 증가율 추이 2011~2012 >



자료 : OECD, 무역협회.

< IMF의 주요국 경제성장률 및 세계교역량 전망치 >

구분	2011	2012(E) ('12. 1)	2012(E) ('12. 4)
세계	3.9	3.3	3.5
미국	1.7	1.8	2.1
유로지역	1.4	-0.5	-0.3
일본	-0.7	1.6	2.0
중국	9.2	8.2	8.2
세계 교역량	5.8	3.8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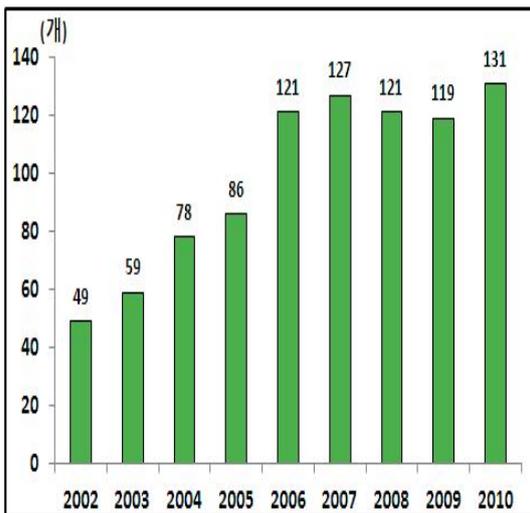
자료 : IMF.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2. April.

○ (수출경쟁력 유지)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제품들이 꾸준히 늘어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우리나라의 일류상품 중 세계 시장점유율 1위인 품목은 2002년 49개에서 2010년 13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은 총 131개이며,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드는 품목을 포함하면 총 405개임
 - 세계시장점유율 1위 상품 중 대기업 제품은 59개이고 중소기업 제품도 72개에 이르며, 5위 이내의 품목에서는 대기업이 187개, 중소기업이 214개임
 - 1위 품목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LNG 운반선, 컬러 모니터 등에서 내화금고, 알로에, 화장술, 휴대용 부탄가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향후 5위 이내에 들 차세대 일류상품의 수는 186개임
- 2011년 신흥국과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은 대부분 높은 증가세를 유지
 - 對신흥개도국 수출에서는 선박과 석유제품, 자동차 및 부품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對선진국 수출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철강 등이 높은 증가율 기록
 - 2/4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될 경우 경쟁력 높은 품목들의 수출도 크게 증가할 전망

< 세계시장점유율 1위 품목수 2002~2010 > (단위 : 개)



자료 : 지식경제부.

< 신흥국 및 선진국 수출 품목 2011 > (단위 : 억달러%)

對신흥개도국			對선진국		
품목	수출액	증감율	품목	수출액	증감율
선박	386	35.7	자동차	153	35.0
반도체	348	2.9	석유제품	131	55.0
석유제품	295	74.5	무선통신	127	9.6
자동차	211	22.4	반도체	70	-18.0
합성수지	143	15.2	자동차 부품	61	21.4
자동차 부품	130	26.8	철강	47	5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1년 수출입평가 및 2012년 전망".
주 : 2011년 1-10월까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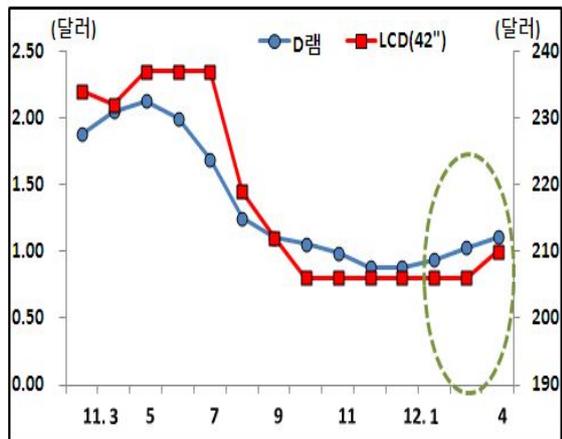
○ (IT 수출 경기 회복) IT 수출은 지난해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였으며, 향후 단가 상승 및 점유율 증가 등으로 수출은 확대될 전망

- 2011년 IT 수출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무역수지의 2배를 상회함으로써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
 -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IT 산업은 높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형 제품의 수출 호조로 2011년 755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지난해 반도체는 유럽재정위기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향후 반도체 가격의 반등으로 수출 증대가 예상
 -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 과잉, 태국 홍수 여파로 D램 주력제품(DDR3 2Gb 256×8 1333MHz)의 가격이 개당 0.88달러까지 하락
 - 그러나 일본 반도체 업체인 엘피다의 파산과 함께 최근 D램 가격이 개당 1.11달러까지 상승하여 향후 반도체 수출 업황의 개선이 기대
- 최근 LCD패널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의 확대 추세에 따라 경쟁력이 높은 디스플레이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
 - 올해 풀 HD용 40~42인치 LCD 패널의 가격이 4월 21일 현재 210달러로 지난달 206달러에 비해 2.0%상승
 -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높은 AMOLED 패널의 시장규모가 2011년 33.6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81.8억달러로 143%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런던 올림픽 등 호재로 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IT 산업 및 전체 수출입 동향 2010~2011 > <반도체 및 LCD 패널 가격 추이 2011~2012 >
(단위: 억달러)

구분		2010년	2011년
수출	전체	4,664	5,552
	IT	1,599	1,642
수입	전체	4,252	5,244
	IT	831	907
수지	전체	412	308
	IT	768	735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DRAMeXchange. Displaysearch.

○ (고유가 속 석유제품 수출 급증) 유가 상승으로 인해 석유제품의 수출이 급증했으며 향후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제품 수출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

- 2011년부터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원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출액이 급증했고 2012년 2월 현재 최대 수출 품목으로 비중이 증대
 - 석유제품은 2011년 51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9.3%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12년에는 3월 현재 138억달러로 전체 수출액 중 1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2003년 석유제품의 수출은 66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10년간 연평균 33%에 달하는 수출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2012년 3월 현재도 석유제품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
 - 석유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원유가격 인상과 함께 동일본 지진 이후 우리나라 석유제품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가, 국내 정유업체들의 자체설비와 고도화설비 확충 등에 기인
- 당분간 국제유가는 120달러 내외의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도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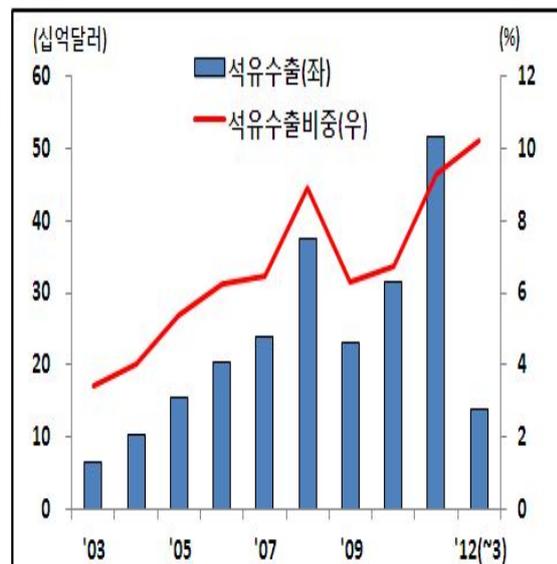
< 수출 상위 10대 품목 2012 >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2(1~3월)	
	금액	비중
석유 제품	13.8	10.2
자동차	12.4	9.2
선박	12.2	9.0
반도체	12.0	8.9
평판디스플레이	7.0	5.2
자동차부품	6.0	4.5
철강판	5.2	3.9
합성수지	4.8	3.6
무선통신기기	4.8	3.5
건설광산기계	2.4	1.8
수출 총액	134.9	-

자료 : 무역협회.

< 석유제품 수출액과 수출비중 추이 2003~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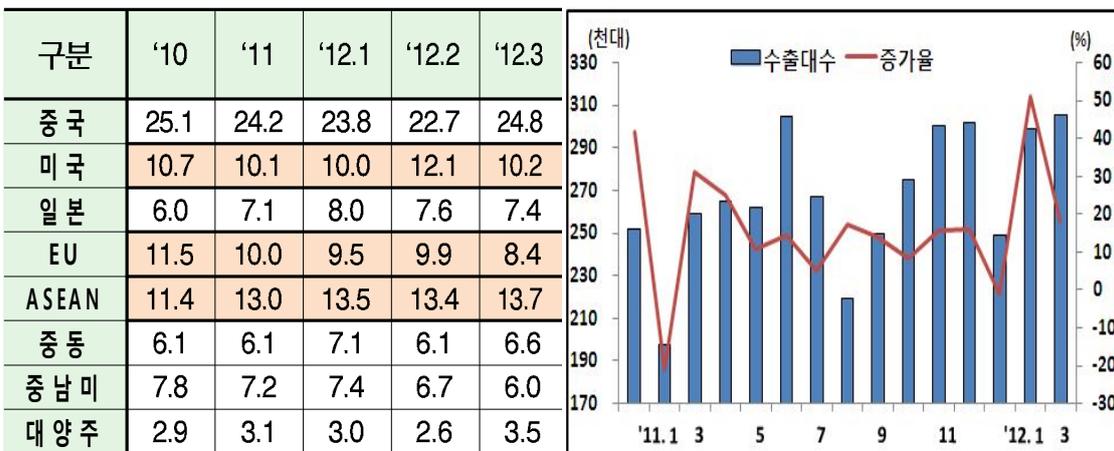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 (FTA를 통한 수출 여건 개선) 미국, EU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

- 한미 FTA의 발효로 EU, ASEAN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강화 및 수출 비중 확대가 기대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로 수출 여건 개선
 - 대미 수출비중은 201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미 FTA의 발효로 인해 수출 비중은 증가할 예상
 - 對EU 수출 비중은 유럽재정위기로 감소했지만, 한-EU FTA의 효과로 2011년 중소기업의 對EU 수출이 18.9% 증가하여 전체 수출증가율인 16.1%를 초과²⁾
 - 정부는 FTA 종합지원센터 건립,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업체들의 FTA를 통한 수출 여건이 개선
- 한미 FTA의 체결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및 섬유 등의 수출 주력품목들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
 - 자동차와 부품 업종의 경우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수출 및 미국 시장(2011년 기준 1,270만대 규모) 선점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자동차업계의 미국 현지 생산력도 강화되는 효과
 - FTA의 대표적 수혜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한EU 발효(2011. 7)이후 크게 늘었으며,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자동차 수출은 305,257대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기록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대미 수출이 연평균 12.9억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연평균 5.7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전망³⁾

<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2010 -2012 > (단위: %) < 월별 자동차 수출 추이2011 -2012 > (단위: 백만달러)



자료 : 무역협회.

자료 : 지식경제부.

2) 중소기업청, 한-EU FTA에 따른 지난해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수출성과. 2011. 4.

3) 기획재정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 8.

3. 대응 방향

- 향후 수출 경기 회복을 위해 R&D 투자 확대, FTA의 활용 극대화, 새로운 수출 틈새시장 개척 등이 필요하며 국제유가 및 환율의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야 함
 - 첫째, 지속적인 수출 경쟁력의 제고
 -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높은 신성장산업과 고부가가치의 수출 품목을 발굴·육성
 - 둘째, 미국 EU 등과의 FTA의 활용도를 극대화
 - 미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 자동차, 부품, 섬유, IT와 반도체 등의 경쟁력 높은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 지원과 선진국 시장 선점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제공 등 FTA 효과를 극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
 - FTA 활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검증시스템 도입과 기업들의 인증심사에 대한 지원 및 인력의 대대적인 확충이 필요
 - 셋째, 새로운 수출시장 진출 및 수출 틈새시장을 개척
 -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국가와 지역을 파악하고 이들의 특성 및 문화를 파악하여 틈새시장을 개척
 -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 남미, 인도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
 - 넷째,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 정유업체에 대한 제품 경쟁력 제고
 - 외환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원화 강세 등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시장의 개척 등이 필요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최성근 (csk01@hri.co.kr, 2072-6223)